

흑산공항 내년말 착공 ‘빨간불’

군 항공기 항로 영향·철새 서식지 대책 미흡

환경부 심의 보류 ... 금호 등 컨소시엄 유찰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류로 인해 흑산공항의 내년 말 착공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 및 철새 대책 서식지 대책 미흡,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미진 등이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 국방부 측은 해

군 공공수역 관련 협의가 미진하고 공항을 이용할 항공기들이 군 항공기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새 대책 서식지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심의 결과가 정식 통보되면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거나 정부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착공을 위해 3월 재심의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 때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을 지원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 역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흑산도 신공항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환경단체의 반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은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 비경과 생물 다양성·서식지 등이 훼손되며 매장된 신라시대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입찰도 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만 단독 참가하면서 결국 유찰됐다.

다음달 12일 재입찰 예정이다. 이번 입

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가격(1336억원)을 확정하고 기술로 업체를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형태로 입찰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입찰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추진된다. 금호 컨소시엄 외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활주도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0억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무등산 사계 3D 영상으로 감상

28일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로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아트스페이스에 조성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공개됐다. 이 공간은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3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사진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미디어 놀이터 내에 설치된 무등산의 사계를 3D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바람의 공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예산편성·집행 ‘줄속’ 1000억 이월

이월액 해마다 늘어

반납 국비도 179억

광주시의 줄속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올해 사용하지 못해 이월한 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반납하는 국비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올해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明示

移越) 예산액은 100건, 940억원에 달한다. 명시이월한 사업의 기정 예산액은 1487억원이지만 36.5%인 543억5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63.5%는 해를 넘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과 2014년 50건(562억원)과 73건(967억원)이었던 명시이월 건수는 지난해 120건(154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출납 폐쇄 기간이 앞당겨져 명시이월 건수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비를 쓰지 못해 반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반납한 국비는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해 179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주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가 대상자 11만여명 중 목표 인원 8만3000명을 훨씬 못

채운 6만800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상자 1명 당 5만원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48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가 일선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市費)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도 늘고 있다.

반환액은 2012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 올해는 117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서별 반환금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3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과 21억원, 도로과 13억8000만원, 일자리정책과 9억7000만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영대회본부·군공항이전추진단 신설

광주시 조직개편 단행

민선 6기 들어 7번째

광주시가 현안사업인 ‘2019 세계수영대회’ 개최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과 광주 군(軍)공항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3실 6국 2본부 11관 4담당관 42과에서 1본부 1과를 늘려 3실 6국 3본부 11관 4담당관 43과 체제로 바꾼다. 일반직 정원 기존 3386명에서 30명을 줄여 3356명으로 조정된다.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70여명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이 줄면 그만큼 신규 채용이나 전입 제한이 이뤄진다.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체

제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7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5개월에 한 번꼴인 셈이다. 2019년 말까지 수영대회지원본부 가 한시 기구로 신설된다. 본부장은 국장급(3급)이다.

대화지원과 경기시설과 등 1본부 2과 4팀 체제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이전추진단도 만들어진다. 도시재생국내 도시디자인과와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통합해지고, 자치행정국내 청년인재육성과가 청년정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을 뺀 시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기획과와 교육운영과는 통합해 교육운영과로 변경된다. 기존 3과 체제에서 2과로 줄게 된다.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과는 통합사무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영대회와 군공항 이전이라는 시 최대 현안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직개편이다”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40년 전남 노령인구, 유소년 인구의 4.2배

호남지방통계청 인구 추계

앞으로 24년 후인 2040년에는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4.2배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전남지역 노령화지수는 421.9%로 추산됐다.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다.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유소년 인구보다 노령인구가 많다는 의미다.

향후 연도별 전남지역 노령화지수는 2020년 201.3%, 2025년 241.7%, 2030년 292.1%, 2035년 347.5%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지역 노령화지수는 2020년 91.0%, 2025년 118.5%, 2030년 148.9%, 2035년 182.4%, 2040년 222.9%로 추계됐다. 2040년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288.6%로 전남은 이보다 높고 광주는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를 뜻한다.

연도별 전남 노년부양비는 2020년 37.0명, 2025년 45.4명, 2030년 56.7명, 2035년 69.8명, 2040년 83.7명이다.

광주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19.0명, 2025년 25.4명, 2030년 33.2명, 2035년 41.4명, 2040년 49.8명이다.

2040년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 48.9명보다 광주·전남 모두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대수명은 2014년 광주 82.0세, 전남 81.7세로 2005년 79.1세, 77.8세보다 3~4세가량 늘었다.

인구 1만 명당 의료기관(전국 평균 13.4개)은 2014년 기준 광주 18.4개, 전남 16.6개였다. 총 의료기관 수는 광주 2652개, 전남 3215개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문금주 행자부 감사관 임명

문금주(49)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이 30일자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다.

보성출신인 신임 문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광주 서석고,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

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 부장·개인정보보호과장,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창조도시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기획 능력은 물론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며, 리더십도 갖췄다.

박순중 현 기획조정실장은 전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기에 더 안전한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지구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